

보 일 러



孫 基 燮

충남대 의대교수 · 외과학

겨울에 그것도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든가 하는 기록적인 날에 고장이 나서 온 식구를 동태로 만들려고 드는 것이 바로 이 보일러다. 아마 한 겨울에는 더러 경험들을 하셨을 줄로 안다.

몇일 전이었다. 보일러의 순환펌프만 혼자 계속 돌아가고는 불이 다시 붙지 않다가 끝내 그것도 서버렸다. 나는 보일러의 종류가 R보일러이기 때문에 서비스점에 부탁하면 되려니 하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출근을 했다. 그러나 저녁에 와 보니 내가 출근하고 난 뒤 곧 전화를 하기 시작해서 몇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직원이 일 나가고 없다는니, 우리 보일러는 형이 구식인데 그 전문기사는 하나뿐이어서 손이 모자란다는니, 아직 신고가 안돼 있다는니, 하며 미루다가 나중에는 이 보일러는 자기네들이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

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날 하루를 넘기고 말았다.

나는 그동안 바쁘데다가, 또 전망증이 심해서 잊었지만 아내의 말로는 82년에 들여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오래 되기도 한 것이다.

집은 50평이 넘는 단독주택인데다가 몇년전에는 배수관이 낡아서 물이 새어나와 백몇십만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들어서 좋다는 동파이프로 갈았다. 그러나 수리하지 않은 2층만 종전대로 따뜻할 뿐이지, 아랫층은 춥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당장 물은 새지 않는 것 같고, 집의 한 부분이라도 따뜻하니 집안에 훈기 같은 것이 있는데다가 따뜻한 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방마다 전기 담요를 쓰면서 참고 견뎌온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더운 물까지 못쓰게 되었으니 여간 낭패가 아니었다. 마침내 팔순이 넘은 어머님께서도 아침에 찬물

을 가지고 세수를 하시다가 담까지 붙어 옆구리가 결리게 되었다.

나는 집에 있던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우선 드리고 경과를 좀 보기로 했으나 보일러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했다. 아내는 다행히 날씨도 그리 춥지도 않고 하니, 그날 다시 연락을 해서 사정을 해 보겠노라고 했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어 나는 출근하는 길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여직원이 받더니 남자가 바꾸어 "네에 알았습니다"하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남자가 하니 좀 다르구나 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해냈노라고 하고는 그 길로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늦게사 돌아왔다. 그러나 밤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또 몇번 전화를 했는데도 기어이 안 왔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오전중에 나는 서비스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이기 는 했지만 싸우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 팔승노모님께서 담까지 붙으셨노라고 사정을 했다. 또 “네에 곧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곧 보낼듯한 투라 한번 더 속아 보기로 했다. 얼마 뒤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와 같은 종류의 보일러를 고칠줄 아는 사람이 일 나갔으니 오는 대로 곧 보내겠노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오후에 집에다 전화를 다시 걸었다. 아내는 오기는 왔었는데 다 고쳤다고 돈 2만원을 받아 갔는데 가고 나서 곧 서버러서 다시 오라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랬더라도 우선 그들이 와 주었다는데 한시름 놓았다는 느낌이 있었다. 퇴근을 해서 돌아와보니 서비스센터에서 사람이 다시 와서 고치고 있었다. 아내는 마시고 하라고 차까지 타놓고 있었다. 나는 어둠이 깔린 지하실에 가서 손전등을 비추주면서 차나 먼저 마시고 하라고, 그 기사에게 상전 비위 맞추듯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사는 보일러가 낡고 녹이 슬어서 내년쯤에는 바꿔야 하겠으며 이렇게 임시로 고쳐 놓고 내일은 물을 돌리는 환수펌프부터 바꿔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안 돌아 간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실은 작년엔가도 그 환수펌프를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바꾼 것이 아니었던가.

기사가 돌아 간 뒤 보일러는

또 곧 서버리고 말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다음날은 낡은 환수펌프를 바꿀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일러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렇지만 R 보일러의 서비스센터에서 몇일동안을 애먹이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취급하는 R 보일러로 갈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다음날 출근을 하고는 누구 잘 아는 사람에게 문의를 한 다음에 보일러를 들여와야 하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럴 무렵 병원에서 시설계에 있는 잘 아는 직원을 만난김에 보일러 얘기를 했더니 왜 진작 얘기 안했느냐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오늘 병원에 오기로 되어 있으니 점심시간에 한번 같이 가서 봐주겠노라는 것이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처음부터 부탁을 해볼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안한 것은 그런 일로 직장에 신세를 지고 싶지가 않았다. 숙제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 속이 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보일러를 새로 사야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마침 아는 직원과 마주쳤으니 문의나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온 분들이 손을 보자 금방 돌아가게 되었고, 환수펌프도 지금 당장 갈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하고 기계도 잘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에

를 태우느냐고 당장 2만원을 도로 보내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며 환풍기 바꿀 사람을 얘기해왔으니 한번 가볼터던 참이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보내겠노라고 해서, 잘 돌아가는 보일러를 가지고 또 무슨 수작이냐고 야단을 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아내와 맞장구를 치다가 퍼뜩 머리에 떠올르는 것이 있었다. 전 해에 환수펌프를 바꾸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다. 그리고 고치러 오기에 앞서 짧지 않은 시간을 두고 애타게 하여 끝내는 새 보일러로 바꿔야 하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던 일들을 생각하니, 마침 형클어졌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의문들이 슬슬 풀리는 것만 같았다. 몇십만원을 들여 보일러를 사려 든 사람에게 십 몇만원 밖에 안드는 순환펌프를 바꾸는 것은 차라리 고마울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과연 그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 지금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에 대한 방송이 한창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측에 책임이 있단다. 몇년전만 해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부러워 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른데는 이 우리집의 보일러사건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다. 보다 장구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보다 성실과 정직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닐런지...